

광주 문화공간 4곳 ‘여행자플랫폼’ 탈바꿈

아트폴리곤·책과 생활 등
여행정보 제공·짐 보관 서비스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광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입소문 난 민간 운영 문화공간이 여행자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가 독립서점, 미술관, 게스트하우스 등 4곳의 문화공간을 여행자플랫폼으로 선정,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다. 이들 민간 문화공간은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 상시 방문자를 맞이하고, 여행자들에게 광주전남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짐 보관 서비스 등 여행자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개별 문화 공간의 특성을 살린 이색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별도 이용료 없이 무료 Wifi 이용은 물론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여행자플랫폼 대상은 근대 테마여행의 거점 ‘양림살롱 여행자라운지’, 지역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기지 ‘아트폴리곤’, 인문학으로 만나는 독립서점 ‘책과 생활’,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아지트 ‘페드로하



인문학으로 만나는 독립서점 ‘책과 생활’

우스&보야저스’ 등 4곳이다. 온라인과 입소문을 통해 하나같이 여행객들에게 매력을 인정 받은 문화 공간이다.
이달부터 8월까지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림살롱 여행자라운지는 광주의 근대 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에 자리 잡고 있다. 북고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곳으로 근대 테마 여행 프

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복이나 근대 의상을 입고 양림동 근대 건축물과 문화공간을 돌아보는 ‘근대 의상 입고, 양림달빛투어’, 명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강연 ‘오빠는 여행쟁이’ 같은 이색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아트폴리곤은 ‘남도의 몽마르뜨 언덕’이라고도 불리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언덕에 위치한 숲 속 미술관이다.
옛 선교사 사택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

와 예술 레지던시 창작소, 야외 공공미술 작품까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예술가와 함께하는 양림동 예술산책’ 등이 운영된다.
서석동 ‘책과생활’은 인문학을 통해 지역을 만나는 독립서점이다. 책을 매개로 광주와 남도를 여행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지식을 공유하는 ‘여행자의 불빛서점-책과여행’, ‘책과여행스페셜’ 강연 등이 운영 중이다.
상촌동 ‘페드로하우스&보야저스’는 운영자의 풍부한 여행 경험과 매력적인 취향이 돋보이는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아지트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여행과 힐링요가’, 지역민과 광주를 방문한 여행자가 영화를 매개로 교류하는 상영회 겸 네트워킹 파티인 ‘페드로하우스 여행자 극장’도 열린다.
이명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지역 문화공간들이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여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주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동구 학동 주민 40여명 마을탐방 워크숍

광주시 동구 학동주민들이 광주백범기념관 등 마을 곳곳을 탐방하며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학동 주민 40여명과 함께 ‘광주전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초록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탐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학동행정복지센터와 학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가능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백범기념관을 시작으로 광주전, 학4재개발지역, 학3거리소공원 등을 역사해설과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탐방에서는 백범기념관에서 김

구선생의 정치후원금으로 조성됐던 백화마을 이야기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재개발을 앞둔 학4구역 곳곳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학동은 촬영된 사진을 추후 마을 관련 자료로 보관할 계획이다.
또 학동의 생태보고인 광주전에서 광주전남녹색연합, 참여주민들이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마을탐방해설을 맡은 조종진 학동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5월 10일까지 연장 접수

광주시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을 5월 10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구직교통비지원’ 접수 기간은 애초 4월26일까지였지만, 시험기간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졸업반 학생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면서, 대학(대학원) 졸업반 학생,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 청년이다.
특히 기존에는 광주·전남 지역대학 출신 대학생(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월 6만원씩 5개월 간 나눠 온라인 쿠폰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시불로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장 신청은 5월10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서구 중앙로 우체국보험회관 15층(주)한페이시스(현장 및 우편)로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 의장,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연합회장, 노동자 등이 손을 맞잡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을 외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 5월 가정의 달 전시·콘서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

광주시는 대인예술시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맛·멋·예술을 더한 ‘보장 보장 둘째 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우선 대인예술시장의 상설문화공연 프로그램인 ‘에인열전’은 어른·어린이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낼 퍼포먼스 중심으로 진행한다.
260인치 요술풍선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관람객에게 선물할 ‘꿈과 희망을

주는 별룬쇼’와 자이언트 버블을 만들어 내며 환상의 세계를 펼칠 ‘버블매직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장난감 피아노 연주자의 ‘미니 피아노 콘서트’ 등도 진행된다.
5월 18일과 25일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묘수’ 참여작가 정재엽, 양세미, 전준모, 정혜진, 윤석문 등 5인이 합류해 예술가존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들 작가는 자신의 대표 작품과 부채를 콜라보한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스 작가로서 작품활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평갤러리에서는 광주 청년작가 3인을 초대해 5월 주제 ‘보장보장’에 맞춰 인간의 내면을 심안을 통해 바라보는 ‘LOOK’전이 운영된다. /최권일 기자 cki@

북구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 협약

광주시 북구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30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의 주요 문화예술시설이 집적돼 있는 중외공원을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은 광주시 북구·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광주문화예술화관·광주시립민속

박물관·(재)광주비엔날레 등 총 6개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서에는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행사 등 주민참여 방안,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지원, 지역주민 공연, 전시 기회제공,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6개 협약기관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18~34세 청년 ‘희망 잡클래스’ 운영

광주시 남구는 “광주시 공모사업인 희망 잡클래스 사업에 선정돼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 저소득 청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선보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희망 잡클래스 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 50명을 선발, 적성·경력·학력에 따라 맞춤형 1대 1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육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과 교육을 진행해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구는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된 22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희망 잡클래스에 참여하는 청년층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의 기능 강화와 구성원간 관계 회복을 지원해 이들이 취업 및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 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